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12면
워라밸 문화증진
성인지적 감수성 향상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0년 6월 5일 금요일 (윤 4월 14일) 제255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전북도 · 11번가 '손잡았다'

농특산물 온라인 시장 판로 활성화 업무협약 판매수수료 50% 감면

전라북도는 4일 도청에서 11번가(주) 및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청정 전북 농특산물 판로 활성화와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라북도 송하진 도지사와 11번가(주) 이상호 대표, (재)전북경제통상진흥원 조지훈 원장을 비롯한 각 기관 임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 농축산물 거래액이 전년 동월대비(3월 기준) 91.8%가 증가하는 등 언택트(비대면 구매 서비스) 소비문화에 대응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브랜드 상품 개발 및 프로모션(기획전) 지원과 11번가 오픈마켓의 우선 입점 및 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 최대 50%를 감면하고, 적극적인 상품 홍보 지원 등을 통해 온라인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11번가(주)는 SK그룹의 계열사로 2008년 오픈마켓 론칭 이후 일 거래액이 1,020억원을 돌파하는 등 PC와 모바일을 포함한 방문자수 1위 기업이다. 2,3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월 1,500만명이 방문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형쇼핑몰로서, 11번가 회원의 약 64%가 구매력이 높은 20 ~ 40대임을 감안할 때 온라인 판로 확대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의 우수 농특산물이 지속적으로 홍보되고 안정적인 구매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2001년부터 농특산물 쇼핑몰인 "거시기 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재)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위탁운영하여 2019년 기준 45억원의 매출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PC 중심에서 모바일 플랫폼을 추가개발 함으로써 소비자 접근성과 편리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거시기 장터의 브랜드화와 다수업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모션 확대 및 택배비 등 공익적 지원도 추진해왔다. 전북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거시기 장터와 11번가 간 협업으로 6~8월까지 월 1회 전북 농특산물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고정고객을 확보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개인 방역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면서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온라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11번가와의 만남이 안전한 전북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는 물론, 온라인 플랫폼 운영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향후에도 농특산물의 온라인 시장 확대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전북도는 11번가(주) 및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청정 전북 농특산물 판로 활성화와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4일 도청 접견실에서 갖은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와 이상호 11번가(주) 대표, 조지훈 (재)전북경제통상진흥원 원장및 참석자들이 업무협약을 갖고 있다.

현충일 오전 10시 묵념사이렌 1분간 울린다

제65회 현충일을 맞아 오는 6일 오전 10시에 묵념사이렌이 울릴 예정이다.

전북도는 제65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조국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는 추념행사에 맞추어 오전 10시부터 1분간 도 일원에서 현충일 묵념사이렌이 울린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현충일 묵념사이렌이 울리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묵념을 하면서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호상기자

임실 '중기사 철조여래좌상' 전북도 유형문화재 지정

통일신라 양식 계승한 고려 초기 철불로 학술적 가치

임실군 신평면 소재 중기사에 있는 철조여래좌상(鐵造如來坐像)이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철조여래좌상은 오른 팔이 어깨에서부터 결실되었고 왼손도 손목 아래 부위가 결실되어 정확한 수인은 알기 없으나 이 시기 석가여래를 주로 주조하였던 점을 생각하면 여래좌상으로 추정된다.

중기사 철조여래좌상은 통일신라 시대 창건된 진구사지(珍丘寺址)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체적인 형식과 조성기법으로 볼 때 보물 제267호 〈임실 진구사지 석등〉, 도 유형문화재 제82호 〈임실 용암리사지 석조비로자나불상〉과 동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통일신라 양식을 계승한 고려 초기 철불로 학술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전북도는 '중기사 철조여래좌상'에 대해 지난 2월 7일부터 30일간 지정예고했으며, 지난 5월 27일 문화재위원회 2분과 위원회(위원장 김병기)의 심의를 통해서 최종 지정했다.

한편 중기사는 1920년경 박봉주 주지에 의해 건립되었으며, 1998년 진구사지 발굴과정에서 현재의 자리로 이전했으며, 불당은 콘테이너 건물에 조성되어 주민들의 탄식이 이어져 왔었다.

심민 임실군수는 "장차 중기사 철불법당을 조성하여 임실 진구사지와 연결하는 정비를 해 나가겠다며, 관람객들이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063-640-23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기자

임실군 신평면 소재 중기사에 있는 철조여래좌상(鐵造如來坐像)이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전북 올 첫 'SFTS' 환자 발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道 "살인진드기 주의하세요"

임실거주 50대 전북대병원서 치료 중… 예방수칙 준수 당부

전북도 보건당국은 올해 첫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예방 주의를 당부했다.

SFTS(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란 제3급법정 감염병으로 4-11월 참진드기(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고 고열,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올해 도내 첫 확진환자는 임실군에 거주하는 만 54세 남성으로 최근 텃밭 작업(양파재배)을 하였고, 6월 1일 발열이 있어 도내 의료기관에서 외래치료를 받았으며 6월 3일 지속되는 고열과, 설사, 두통, 근육통 등이 있어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게 되었다.

진드기에 물린 흔적은 없으나 혈소판수치 감소, 간수치 상승 등으로 SFTS를 의심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6월 3일 오후 전북보건 환경연구원에서 SFTS 양성으로 판명되었으며, 환자는 현재 관련 증상이 있기는 하나 양호한 상태로 치료받고 있다.

'SFTS'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에서 발생이 보고되고 있으며, 치사율이 12 ~ 47% 정도로 높은 질환으로서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진드기(작은소피참진드기 등)'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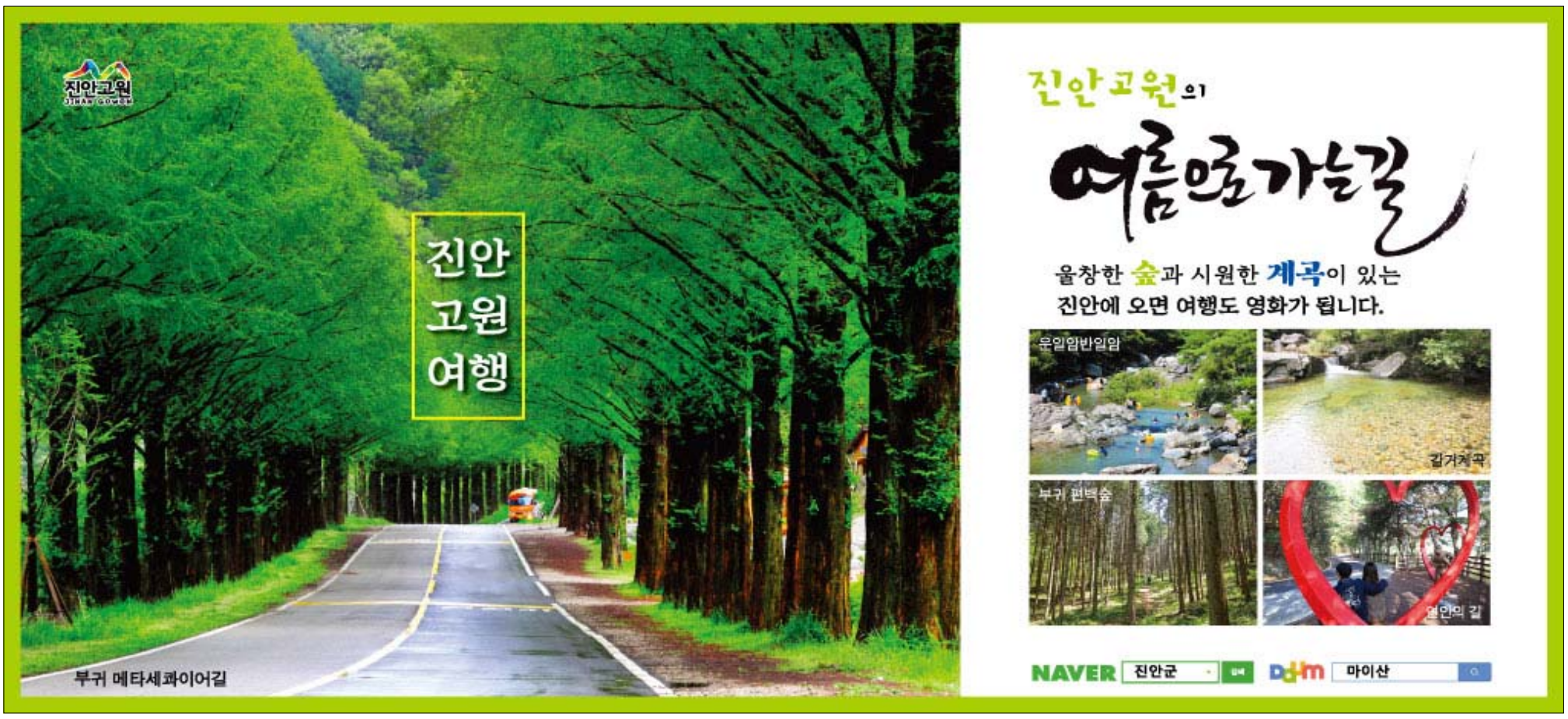
도내에서는 2015년 2명(2명 사망), 2016년 3명, 2017년 10명(2명 사망), 2018년 13명(6명 사망), 2019년 18명(5명 사망), '20년 현재까지 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진드기 매개질환인 SFTS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긴팔· 긴옷을 착용하고 야외활동 후에는 즉시 샤워를 실시하며, 농사일에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하여 사용해야 감염을 막을 수 있다.

특히, SFTS 감염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농업 및 임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농촌지역 고연령층에서 주의가 필요하며, 만약 진드기에 물린 것이 확인될 경우 무리하게 진드기를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등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로 SFTS 발생이 주춤하였으나 농작업이나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농작업, 성묘·벌초나 등산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강조하며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38-40도)이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기"를 당부했다.

/유호상기자

토 · 일요일 신문 쉽니다.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